

# 초등학생 군인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김경미 · 이가연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associated with Behavior Problems of Military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youngmi Kim · Gaeon Lee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of military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Methods:** Participants were 195 military children who were attending D-elementary school in C-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8 to July 10, 2013,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Han's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Scale, Lee's Parent's Rearing Attitude Scale, and Hong's Friend/Teacher Support Appraisal Sca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which included the t-test, the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subjects' behavior problem was 1.47/5.0 points. The degree of the score is similar to or slightly lower than that of ordinary childre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gender, grade, birth order and economic status. Behavior problem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s rearing attitude, parent-child relationship,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Influencing factors of behavior problems were teacher's support,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rearing attitude, which explained 20.6%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eacher's support for elementary students and to educate parents to improve their parenting skills by developing proper school health programs.

**Key Words:** Military personnel, Child behavior, Primary school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수는 63만 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약 25%가 직업군인이다(National Defense Department, 2012). 직업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아 가족들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가정

의 자녀들보다 더 잦은 전학(Finkel, Kelley, & Ashby, 2003)을 해야 한다. 빈번한 거주지 이전과 전학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전환의 측면(Leitzel, Charlton, & Jeffreys, 1997)과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의미(Finkel et al., 2003)에서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아동의 안정성을 파괴시켜 학교 폭력의 노출에 취약할 뿐 아니라(Haynie & South, 2005),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Ju, Cho, & Kim, 2013; Lee, 2008)을 호소하는 부정적 영

Corresponding author: Gaeon Lee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885, Fax: +82-51-240-2920, E-mail: gelee@dau.ac.kr

- 이 논문(작품)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투고일: 2013년 11월 6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7일

향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군인가정 자녀에 비해 음주와 약물남용 경험이 5~8배 가량 높게 보고되고 있고 (Acion, Ramirez, Jorge, & Arndt, 2013), 이들 중 가출충동 경험은 65%, 자살충동 경험은 5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Lee, 2008), 공격성향 또한 높게 보고되고 있다(Oh, 2000). 특히 이들은 전학횟수가 많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어(Lee, 2008), 이들을 향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의 장기간 파병근무나 격오지 근무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일시적 별거를 하며,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과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Finkel et al., 2003),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 체계는 군인 자녀들을 외로움(Kim & Park, 2011)과 정신건강 의 고 위험군에(Flake, Davis, Johnson, & Middleton, 2009) 노출시킬 수 있다.

더우기 직업군인은 24시간 비상대기와 야간근무가 반복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급 상황에서도 조직의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고 부하를 통제하는 직업적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이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Willerton, Schwarz, Wadsworth, & Oglesby, 2011). 즉 군인인 아버지는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에게도 엄격한 규율준수를 강조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오히려 자녀에게 일탈행동을 유발하며(Kim & Yoo, 2002), 공격적 성향을 갖게 하고(Murray, Dwyer, Rubin, Knighton-Wisor, & Booth-Laforce, 2013), 외로움(Kim & Park, 2011)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직업군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빈번한 전학, 가족체계의 불균형과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로 인하여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11년 학교폭력 경험율은 전체적으로 10%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은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Maeil Business Newspaper, 2012). 2008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62%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 고등학생의 3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Statistics Korea, 2013). 특히 초기 청소년 시기의 5, 6학년은 신체적인 급성장과 함께 학업성취를 포함한 발달과업과 또래관계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심리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Cho, 2006). 이러한 어려움이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경우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행, 약물사용, 폭력과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뿐 아니라 성인

기의 정신병리적 문제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Yang & Han, 2007), 이 시기에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군인가정 자녀들은 잦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아버지의 부재 경험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Ju et al., 2013), 이러한 스트레스에 미숙한 대처는 문제행동의 발생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동안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년(Kwon, Kim, Ahn, & Lee, 2005), 성별(Ha, 2003) 및 출생순서(Argys, Rees, Averett, & Witoonchart, 2007)와 같은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Lee & Kim, 2004; Kwon & Lee, 2006),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 친구와의 관계(Ha, 2003; Han, 2010)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문제행동은 개인적 요인, 부모와 학교 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Flake et al (2009)과 Ju et al (2013)의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심리사회적 적응(Flake et al., 2009), 학교생활 적응(Ju et al., 2013)으로 주로 적응에 초점을 두었으며 직업군인의 초등학생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행과 공격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군인가정 자녀의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 학령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군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관련변인을 조사하여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직업군인인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인식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친밀도, 교사/친구 지지 및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인식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친밀도, 교사/친구지지와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문제행동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행동적 문제로 나타나는 공격, 비행성의 외현화 문제의 두 가지를 말한다(Achenbach, 1992).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인 비행과 공격성을 말한다.

#### 2) 군인 자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해군에 복무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생을 말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인 초등학교 자녀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해군부대가 있는 J 지역의 군부대 및 관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서, 연구대상 초등학교는 조사연구의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본 초등학교는 5학년 172명, 6학년 179명, 총 351명이고 학급은 각각 6학급씩, 총 12개 학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군인 자녀는 약 250명으로 73% 정도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5학년 6개 학급과 6학년 6개 학급의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2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5명을 제외한 19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6 program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투입변수 10개일 경우 172명으로 제시되어 충족되었다.

###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자가 대상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에게 자료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아 보건교사

와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여 협조를 받았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 참여자의 익명성,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조사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설문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설문 참여 동의를 얻은 아동들에게만 조사를 하였다. 자료 조사는 2013년 7월 초에 조례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지로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계획서는 군진간호연구소 임상연구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연구에 대한 승인(MNRC-13-IRB-24)을 받았다.

###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친밀도, 교사/친구 지지 및 문제행동에 대한 5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간호학과 교수 1인과 현직 초등학교 보건교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개발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군인자녀 5, 6학년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 1)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Han (2010)이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측정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표준화된 한국판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Oh, Ha, Lee, & Hong, 2001)와 Kim & Lee (199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비행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격성 9문항과 비행 8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총 17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2010)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18의 높은 적재치를 보여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85, 비행 .71, 전체 문제행동은 .88이었다.

#### 2) 부모양육태도검사

본 연구에서는 Lee (2006)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연구에 사용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Oh &

Lee (1982)가 제작한 60문항의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재구성한 도구로서 애정-적대 8문항, 자율-통제 8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는 긍정의 대답에 1점을 부여하고 ‘아니다’는 부정의 대답에 0점을 부여하였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6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통제적인 것을 의미한다. Lee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애정-적대 .74, 자율-통제 .65, 전체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대 .71, 자율-통제 .67, 전체 .80이었다.

### 3)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친밀도 및 부모 간 친밀도

친밀도는 연구자가 개발한 1문항으로 ‘\_와 어느 정도 친밀니까?’ 로 측정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 ‘전혀 친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친하다’로서 최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친밀도는 아버지와와의 친밀도, 어머니와의 친밀도와 부모간의 친밀로 구분하였다.

### 4)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는 Hong (2008)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Dubow와 Ullman (1989)의 사회적 지지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Lee (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한 척도로서 각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Hong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각각 .80,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4, .95로 확인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군인가정 자녀의 문제행동, 부모 양육태도와 친밀도,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군인 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및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4.9%, 여자 45.1%였고, 학년은 6학년이 52.3%, 5학년이 47.7%였으며 출생순서는 첫째가 49.2%, 둘째 이상이 50.8%였다. 전학횟수는 1-2회인 학생이 49.7%, 3회 이상이 26.7%, 전학경험 없음이 23.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계급은 준, 부사관이 62.1%, 장교가 37.9%였다. 아버지와 별거 경험횟수는 1-2회가 46.2%, 없음이 33.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현재 부모님 두 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85.1%였다. 어머니가 직장이 없는 경우가 54.4%였으며,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경제상태는 ‘보통 이하’가 55.4%, ‘잘 산다’는 44.6%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Gender                          | Male                  | 107 (54.9) |
|                                 | Female                | 88 (45.1)  |
| Grade                           | 5th year              | 93 (47.7)  |
|                                 | 6th year              | 102 (52.3) |
| Birth order                     | 1                     | 96 (49.2)  |
|                                 | ≥ 2                   | 99 (50.8)  |
| Times of transfer               | 0                     | 46 (23.6)  |
|                                 | 1~2                   | 97 (49.7)  |
|                                 | ≥ 3                   | 52 (26.7)  |
| Father rank                     | Officer               | 74 (37.9)  |
|                                 | Warrant/petty officer | 121 (62.1) |
| Times of separation with father | 0                     | 66 (33.8)  |
|                                 | 1~2                   | 90 (46.2)  |
|                                 | ≥ 3                   | 39 (20.0)  |
| Status of parents               | Living with parents   | 166 (85.1) |
|                                 | Living with single    | 29 (14.9)  |
| Mother's job                    | None                  | 106 (54.4) |
|                                 | Have                  | 89 (45.6)  |
| Perceived economic status       | ≤ Middle              | 108 (55.4) |
|                                 | High                  | 87 (44.6)  |

### 2. 대상자가 인식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친밀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및 문제행동

대상자가 인식한 아버지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점수는  $6.1 \pm 1.59$ , 자율-통제 양육태도 점수는  $6.5 \pm 1.37$ 이었고 어머니

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점수는  $6.9 \pm 1.41$ , 자율-통제 양육태도 점수는  $6.4 \pm 1.46$ 로 나타났다. 대상자와 아버지의 친밀도 점수는  $4.3 \pm 0.86$ , 어머니와의 친밀도는  $4.6 \pm 0.64$ , 부모간의 친밀도는  $4.4 \pm 0.81$ 이었다. 교사지지의 점수는  $17.7 \pm 4.48$ 이었고, 친구지지의 점수는  $20.1 \pm 4.78$ 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문제행동 점수는  $25.1 \pm 7.73$ 이었고 문제행동의 세부항목 중 공격성은  $14.9 \pm 5.55$ , 비행은  $10.2 \pm 2.68$ 로 나타났다(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비교에서 공격성을 제외한 비행( $t=2.43, p=.016$ )과 전체 문제행동( $t=2.12, p=.035$ ) 점수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격성에서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t=-2.32, p=.021$ ), 비행에 있어서도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t=-3.43, p<.001$ ), 전체 문제행동도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84, p=.005$ ).

출생순서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시도된 분석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첫째 자녀에 비해서 비행( $t=-3.14, p=.002$ )과 전체 문제행동( $t=-2.31, p=.02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먼저 공격성에서는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잘 산다’라고 인식한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t=2.22, p=.028$ ), 비행에서도 ‘보통 이하’가 ‘잘 산다’라고 인식한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t=2.46, p=.015$ ), 전체 문

제행동에서도 ‘보통 이하’가 ‘잘 산다’라고 인식한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43, p=.016$ ). 반면 전학횟수, 아버지 계급, 아버지와 별거경험 횟수, 현재 부모님과 거주여부 및 어머니의 직장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 4. 대상자의 문제행동, 부모양육태도, 부모와의 친밀도,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 간의 상관관계

군인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r=-.36, p<.001$ ),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 $r=-.26, p<.001$ ),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r=-.29, p<.001$ ),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 $r=-.17, p<.001$ ), 아버지와 친밀도( $r=-.34, p<.001$ ), 어머니와의 친밀도( $r=-.22, p<.001$ ), 교사지지( $r=-.35, p<.001$ ), 친구지지( $r=-.26, p<.001$ )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공격성( $r=.97, p<.001$ )과 비행( $r=.87, p<.001$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간의 친밀도( $r=-.12, p=.085$ )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결과는, 군인가정에 있어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적대적, 통제적으로 인식하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낮으며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지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5.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N=195)

| Variables                 | Categories             | M±SD      | Min-Max   |
|---------------------------|------------------------|-----------|-----------|
| Father's rearing attitude | Affectionate-hostile   | 6.1±1.59  | 0.0~8.0   |
|                           | Autonomous-controlling | 6.5±1.37  |           |
| Mother's rearing attitude | Affectionate-hostile   | 6.9±1.41  |           |
|                           | Autonomous-controlling | 6.4±1.46  |           |
| Type of relationship      | With father            | 4.3±0.86  | 1.0~5.0   |
|                           | With mother            | 4.6±0.64  |           |
|                           | Parental               | 4.4±0.81  |           |
| Type of support           | Teacher's              | 17.7±4.48 | 5.0~25.0  |
|                           | Friend's               | 20.1±4.78 |           |
| Type of behavior problems | Aggressive behavior    | 14.9±5.55 | 9.0~45.0  |
|                           | Delinquency            | 10.2±2.68 | 8.0~40.0  |
|                           | Total                  | 25.1±7.73 | 17.0~85.0 |

&lt;Table 3&gt;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Subjects

(N=19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Aggressive behavior |            | Delinquency |            | Behavior problems |            |
|---------------------------------|-----------------------|---------------------|------------|-------------|------------|-------------------|------------|
|                                 |                       | M±SD                | t or F (p) | M±SD        | t or F (p) | M±SD              | t or F (p) |
| Gender                          | Male                  | 15.5±5.89           | 1.81       | 10.6±2.99   | 2.43       | 26.2±8.37         | 2.12       |
|                                 | Female                | 14.1±5.04           | (.071)     | 9.7±2.18    | (.016)     | 23.8±6.68         | (.035)     |
| Grade                           | 5th year              | 13.9±5.16           | -2.32      | 9.6±2.07    | -3.43      | 23.5±6.85         | -2.84      |
|                                 | 6th year              | 15.8±5.77           | (.021)     | 10.8±3.03   | (<.001)    | 26.6±8.20         | (.005)     |
| Birth order                     | 1                     | 14.2±4.92           | -1.70      | 9.6±2.05    | -3.14      | 23.8±6.47         | -2.31      |
|                                 | ≥ 2                   | 15.6±6.05           | (.090)     | 10.8±3.08   | (.002)     | 26.4±8.62         | (.022)     |
| Times of transfer               | 0                     | 16.0±6.57           | 1.35       | 10.9±2.92   | 2.29       | 27.0±9.02         | 1.85       |
|                                 | 1~2                   | 14.7±5.23           | (.262)     | 10.1±2.55   | (.104)     | 24.8±7.22         | (.159)     |
|                                 | ≥ 3                   | 14.3±5.10           |            | 9.8±2.64    |            | 24.1±7.27         |            |
| Father rank                     | Officer               | 14.4±5.64           | -1.01      | 10.0±2.87   | -0.79      | 24.4±8.14         | -1.00      |
|                                 | Warrant/petty officer | 15.2±5.50           | (.313)     | 10.3±2.57   | (.433)     | 25.5±7.46         | (.319)     |
| Times of separation with father | 0                     | 14.0±5.27           | 2.67       | 10.1±2.67   | 0.29       | 24.0±7.31         | 1.84       |
|                                 | 1~2                   | 14.9±5.41           | (.072)     | 10.2±2.75   | (.751)     | 25.1±7.76         | (.161)     |
|                                 | ≥ 3                   | 16.5±6.09           |            | 10.5±2.61   |            | 27.0±8.16         |            |
| Status of parents               | Living with parents   | 14.8±5.55           | -0.66      | 10.2±2.75   | 0.25       | 25.0±7.77         | -0.38      |
|                                 | Living with single    | 15.5±5.60           | (.513)     | 10.1±2.32   | (.800)     | 25.6±7.58         | (.702)     |
| Mother's job                    | None                  | 14.6±5.18           | -0.92      | 10.1±2.76   | -0.93      | 24.6±7.46         | -0.99      |
|                                 | Have                  | 15.3±5.97           | (.358)     | 10.4±2.59   | (.353)     | 25.7±8.03         | (.326)     |
| Perceived economic status       | ≤ Middle              | 15.7±5.90           | 2.22       | 10.6±2.91   | 2.46       | 26.3±8.22         | 2.43       |
|                                 | High                  | 13.9±4.95           | (.028)     | 9.7±2.28    | (.015)     | 23.6±6.82         | (.016)     |

아버지·어머니와 친밀도, 교사 및 친구지지와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성별, 학년, 출생순서, 가정경제수준을 회귀 분석식에 투입하였으며, 명목척도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방법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Table 4), 상관계수가 각각 .869와 .971로 요인간 다중공선성이 있음이 확인된 비행과 공격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한 결과, 상관관계는 -0.36~0.56로 0.8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으로 자기 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55~0.9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8~1.11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7.76,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206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사지지( $\beta=-.244, p<.001$ ), 아버지와 친밀도( $\beta=-.240,$

$p<.001$ ),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beta=-.182, p=.007$ )로 20.6%의 설명력이 있었고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지지로 나타났다(Table 5).

## 고 찰

본 연구는 군인가정의 초등학교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군인자녀의 학교적응 및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최근 들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를 위한 초기 청소년기의 조기개입과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군인가정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관련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본 연구가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간호학적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인 군인 자녀의 전학횟수는 평균 2.03회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Oh (2000)의 연구의 3.6회와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였으며 Moon (2009)의 연구에서 2.44회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이다. Lee (2002)의 연구에서 일반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95)

|     | X1      | X2      | X3      | X4      | X5      | X6      | X7     | X8      | X9      | X10    | X11    | X12 |
|-----|---------|---------|---------|---------|---------|---------|--------|---------|---------|--------|--------|-----|
| X1  | 1       |         |         |         |         |         |        |         |         |        |        |     |
| X2  | .478**  | 1       |         |         |         |         |        |         |         |        |        |     |
| X3  | .438**  | .391**  | 1       |         |         |         |        |         |         |        |        |     |
| X4  | .321**  | .541**  | .560**  | 1       |         |         |        |         |         |        |        |     |
| X5  | .503**  | .309**  | .198**  | .103    | 1       |         |        |         |         |        |        |     |
| X6  | .294**  | .277**  | .325**  | .221**  | .504**  | 1       |        |         |         |        |        |     |
| X7  | .352**  | .206**  | .302**  | .225**  | .335**  | .400**  | 1      |         |         |        |        |     |
| X8  | .360**  | .184**  | .243**  | .192**  | .249**  | .309**  | .235** | 1       |         |        |        |     |
| X9  | .331**  | .248**  | .211**  | .241**  | .241**  | .244**  | .278** | .397**  | 1       |        |        |     |
| X10 | -.352** | -.261** | -.249** | -.144*  | -.328** | -.199** | -.109  | -.331** | -.262** | 1      |        |     |
| X11 | -.296** | -.211** | -.315** | -.187** | -.291** | -.205** | -.131  | -.316** | -.209** | .726** | 1      |     |
| X12 | -.356** | -.261** | -.288** | -.169*  | -.337** | -.215** | -.124  | -.348** | -.261** | .971** | .869** | 1   |

X1=father's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hostile), X2=father's rear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ing), X3=mother's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hostile), X4=mother's rear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ing), X5=relationship with father, X6=relationship with mother, X7=perceived parental relationship, X8=teacher's support, X9=friend's support, X10=aggressive behavior, X11=delinquency, X12=behavior problems.

\* $p < .05$ ; \*\* $p < .01$ .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Behavior Problems of the Subjects

(N=195)

| Variables  | B     | SE   | $\beta$ | t     | p      |
|--|-------|------|---------|-------|--------|
| (Constant)                                       | 48.73 | 3.36 |         | 14.53 | < .001 |
| Teacher's support                                | -0.42 | 0.12 | -.24    | -3.61 | < .001 |
| Relationship with father                         | -2.16 | 0.60 | -.24    | -3.60 | < .001 |
| Mother's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hostile) | -0.99 | 0.37 | -.18    | -2.72 | .007   |

Adj.  $R^2 = .206$ ,  $F = 17.76$

가정 자녀의 전학횟수가 1.94회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잦은 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빈번한 전학을 경험하는 군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전학 초기에 교사의 상담과 친구의 지지, 학부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관점의 중재가 필요하다.

군인가정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점수는 6.9점으로 아버지의 6.1점에 비해 높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친밀도 평균점수는 4.6점으로 아버지와의 친밀도 평균인 4.3점보다 높아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로서 Kwon 등(2005)의 연구에서 아동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Murray 등(201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머니를 더 친밀한 대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자율-통제 양육태도 점수는 6.5점으로 어머니의 6.4점보다 높아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Lee (200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군인가정 자녀가 인식하는 교사 지지의 평균은 17.7점이었으며 5점 척도에 표준화시킨 점수는 3.5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지를 평가한 Lee와 Kim (2012)의 3.72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낮았고,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농촌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지를 평가한 Han (2010)의 2.86보다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은 보고들을 볼 때 결혼가정 아동보다 본 연구대상자가 교사지지

는 높으나 일반가정 아동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빈번한 거주지 이전과 전학으로 교사와의 유대가 다소 약해서 교사 지지를 낮게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군인자녀가 인식하는 친구지지의 평균은 20.1점으로 5점 척도에 표준화시킨 점수는 4.0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의 지지를 평가한 Lee와 Kim (2012)의 연구에서의 3.66점과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농촌조손가정 아동대상의 Han (2010)의 연구에서 3.03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 학교의 군인자녀 비율이 75%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군인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친구간의 정서적 지지가 일반가정 아동보다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군인 자녀의 문제행동의 평균은 25.11점으로 5점 척도에 표준화시킨 점수는 1.47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won와 Lee (2006)의 1.67점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결손가정 아동 대상의 Han (2010)의 1.98점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인가정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일반 가정 자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Lee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군인 자녀가 아버지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책임감과 성실, 정직과 같은 도덕적 영역에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 (Kang, 2000), 본 연구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일반가정 자녀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Oh (2000)는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군인가정 자녀가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고, Jensen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군인가정 자녀가 오히려 일반가정 자녀들보다 잠재적인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어 위험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 자녀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군인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중재가 중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 점수는 남자의 평균이 26.2점, 여자의 평균이 23.8점으로 남자의 문제행동 점수가 더 많았고, 특히 비행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문제행동 정도가 심하다는 여러 선행연구(Ha, 2003; Han, 2010; Murray et al., 2013)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군인자녀의 문제행동은 6학년의 평균이 26.6점으로 5학년의 23.5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Acion et al., 2013; Ha, 2003; Han, 2010;

Kwon et al., 2005)와도 일치하였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은 6학년은 신체적 성장에 맞춘 정서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감정적인 변화와 갈등을 많이 겪는 사춘기를 맞이하기 시기(Kwon et al., 2005)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6학년 남학생이 문제행동 고 위험군에 해당하므로 학교측에서는 체육시간과 과외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외향적 활동으로 풀어줄 수 있으며 본노를 스스로 조절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생순서에 있어 둘째자녀가 첫째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들이 첫째 자녀들에 비해 반항적이며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Argys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Yoo와 Yoo (2010)의 연구는 첫째자녀가 오히려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평가하였으므로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상이 학령전기 아동으로 그들은 동생이 생기면 부모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로부터 관심을 유발하려고 애를 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령기 아동임을 감안해보면, 출생순서가 둘째 이상인 아동은 부모의 첫째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해 가지는 소외감과 경쟁의식 그리고 첫째 자녀의 약자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충동적인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둘째 이상의 자녀들을 위한 보건교사의 맞춤형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수준과 문제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et al., 2009; Yoo & Yoo, 2010)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아동이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기 때문에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은 군인 가정 자녀에게 접근 시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한 경제수준을 변수로 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경제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현화 행동 문제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Ha (2003)와 Yang과 Han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간의 친밀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Lee와 Kim (2004)과 Kwo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간의 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교사 지지, 아버지와 친밀도, 어머니의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는데, 이 중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로 규명되었다. 이는 Han (2010)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가 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Hong (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교사의 지지가 군인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따라서 학교 내에 군인가정 자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반가정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on, Park과 Park (2006)의 연구와 Kwon 등(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매우 관련이 높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아버지와 친밀도가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 Kim, 2004; Murray et al., 2013)에서 아동이 인식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버지와 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군인 가정 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Willerton et al., 2011). Kim, Lee, Suh와 Kim (2013)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간의 잦은 식사횟수는 아동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낮추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족간의 모임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낮추기 위한 관계증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중에서 가정 내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추후 초등학교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일 지역의 일 개 학교에 제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밀도 변인은 연구대상인 아동에 의해 인식된 태도로서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배제한 것은 제한점으로 볼 수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인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군인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들에 비해 비교적 문제행동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지지, 아버지와 친밀도 및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가 나타났다. 즉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간 친밀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은 교사의 지지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교사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인자녀를 위한 지원과 중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과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chenbach, T. M. (1992).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2-3 and 1992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 Acion, L., Ramirez, M. R., Jorge, R. E., & Arndt, S. (2013). Increased risk of alcohol and drug use among children from deployed military families. *Addiction, 108*, 1418-1425.
- Argys, L. M., Rees, D. I., Averett, S. L., & Witoonchart, B. (2007). Birth order and risky adolescent behavior. *Economic Inquiry, 44*(2), 215-233.
- Cho, B. H. (2006).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and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15*(3), 5-21.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inkel, L. B., Kelley, M. L., & Ashby, J. (2003). Geographic mobility, family, and maternal variables as related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military children. *Military Medicine, 168*, 1019-1024.
- Flake, E. M., Davis, B. E., Johnson, P. L., & Middleton, L. S. (2009). The psychosocial effects of deployment on military

- children.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30(4), 271-278.
- Ha, Y. H.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29-40.
- Han, K. L.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rural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Haynie, D. L., & South, S. J. (2005). Residential mobility and adolescent violence. *Social Forces*, 84(1), 361-374.
- Hong, J. M. (2008).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ensen, P. S., Watanabe, H. K., Richters, J. E., Cortes, R., Roper, M., & Liu, S. (1995).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in military children and adolescents: Findings from a two-stage community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 1514-1524.
- Ju, S. J., Cho, S. S., & Kim, G. A.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depression of military family children to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ealthiness of family and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69-95.
- Kang, J. H. (2000). *Perception on father's role of adolescents having military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E. K., & Yoo, K. H.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 - esteem,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thers' attitudes of child rearing. *Journal of Play Therapy*, 5(1), 33-43.
- Kim, J. E., & Park, H. H. (201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as perceived by the children of professional soldier going through adolescence, in terms of their loneliness and self-imag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4), 79-99.
- Kim, J. H., & Lee, D. W. (1995). *The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scales in Korea.*,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 9-179.
- Kim, Y. S., Lee, M. J., Suh, Y. S., & Kim, D. H. (2013).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4(3), 206-212.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Kwon, M. K., Kim, H. W., Ahn, H. Y., & Lee, J. W. (2005).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1), 132-141.
- Lee, D. S. (2006). *Study for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Lee, H. J., & Kim, H. K. (2012).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among late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148-157.
- Lee, J. S., Kim, S. J., Kim, B. Y., Kweon, Y. R., Joung, H. J., & Jeung, S. B. (2009). A study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2(2), 113-124.
- Lee, M. H. (1998). *The effects of self-concept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Jeonju.
- Lee, M. J. (2008).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 delinqu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ilitary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H.,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1), 129-143.
- Lee, S. Y.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transfer exper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the school children of career soldier*. Daejeon University, Daejeon.
- Leitzel, D., Charlton, N., & Jeffreys, D.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mments of military adolescents completing a worldwide survey*, MFI Technical report 97-4. Scranton, PA: Military Family Institute.
- Maeil Business Newspaper. (2012). *School violence, elementary school is more dangerous* [Online]. Availabl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61989>
- Moon, Y. S., Park, I. S., & Park, Y. O. (2006). Prediction model of child behavioral problems in the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4), 514-522.
- Moon, S. Y.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transfer exper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Focus for militar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ngju.
- Murray, K. W., Dwyer, K. M., Rubin, K. H., Knighton-Wisor, S., & Booth-Laforce, C. (2013).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Maternal and patern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http://dx.doi.org/10.1007/s10964-013-0019-1>.
- National Defense Department. (2012). *Defense white paper*. Seoul: Author.
- Oh, K. J., Ha, E. W., Lee, H. R., & Hong, K. U. (2001). *K-YSR Korea youth self report*. Seoul: Huno Consulting.
- Oh, K. T. (2000). *Study on analysis on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and children's adjustment in Korean Soldiers*. Unpub-

- 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Oh, S. S., & Lee, J. S. (1982).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 and defined characteristics*.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 Statistics Korea. (2013). Experience of damage, *school violence 2008*. Daejeon: Statistics Korea Press.
- Willerton, E., Schwarz, R. L., Wadsworth, S. M. M., & Oglesby, M. S. (2011). Military fathers' perspectives on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521-530.
- Yang, M. S., & Han, Y. S. (2007). The influence of child'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ens and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on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 transi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1), 351-363.
- Yoo, I. Y., & Yoo, H. J.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mo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2), 112-119.